



# 전주매일



## 도, 올해 제2회 추경 11조8201억원

기정예산보다 5761억원 증액...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원 부족 미반영 필수 사업 우선 편성에 초점

전북특별자치도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필수 재정 수요 대응을 위해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총 11조8,201억원 규모의 제2회 추경안을 지난 8일 도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경안은 기정예산 11조2,440억원보다 5,761억원(5.1%)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 5,272억원, 특별회계 106억원, 기금 383억원이 각각 증액됐다.

이번 추경은 정부 추경과 연계한 사업의 지방비 반영,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 추진, 국비 변경 내시 대응과 함께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자원 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필수 사업을 우선 편성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민선 9기 주요 공약사업은 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일부 반영하고, 본격적인 재정 투입은 사업별 타당성과 재정 여건을 검토한 뒤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는 최근 정부의 국제 수입 증가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 상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주요 자체 세원인 취득세와 지방소비세가 부동산 경기 침체와 소비 둔화 등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제 증가가 곧바로 지방재정 확대에 이어지는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지방세 재추계와 세외수입 발굴,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한정된 재원을 우선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

9일 전북중소벤처기업청에서 열린 제6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포용금융 관련 과제 발표 및 지역 금융애로 해소 간담회에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배분했다.

다만 자체 자원만으로는 증가하는 필수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워 1,50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해 부족 재원을 확보했다.

도는 이번 지방채가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원활한 이행과 민생·복지 분야 필수 사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자원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도의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은 2025년 말 기준 8.63%로 전국 17개 시·도 분청 평균인 14.6%보다 낮은 수준이다. 도는 향후 세입 여건이 개선되면 지방채를 우선 상환하는 등 재정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주요 편성 내용을 보면, 정부 추경 대응 사업으로 △무기질 비료 가격 안정

정 지원 40억원 △사회연대경제 청년일 경험 시범사업 10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11억원 등을 신규 반영해 고물가와 생활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중앙부처 공모 선정 사업과 국비 변경 사업을 반영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464억원 △구석구석 문화가 있는 날 3억원 △전북권역 재활병원 건립 98억원 등을 편성, 확보된 국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강화에 활용된다.

도정 현안 사업으로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을 위해 시외·시내·농어촌 버스 재정지원 71억원을 추가 편성했으며, △도청 종합상황실 회의 생중계 시스템 구축 1억8,000만원 △무주 트레일 러닝 국제대회 개최 지원 2억 원 등 도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도 반영했다.

이원택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도정의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도민과의 약속은 이어가되 재정은 더욱 책임감 있게 운영하고, 민선 9기 공약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내년도 본예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 민주 송영길 의원, 당권 도전 '출사표'

### "흔들리는 당 다시 세울 것"

"이재명 정부 성공·총선 승리·정권 재창출 이끌겠다"

전북 미래산업 육성 약속... "로보틱스 메카로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이 9일 5.18 국립묘지를 참배한 후 전남광주특별자치회 기자회견실에서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하고 "흔들리는 민주당을 다시 하나로 세우고, 성과와 결과로 말하는 진짜 여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호남이 낳았고, 김대중 대통령이 선택했으며,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헌신해 온 송영길이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다"며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지방선거 결과와 관련해 "우리는 압승에 실패했다"며 "서울·대구·경남 등 반드시 이겨야 했던 지역에서 당의 총력을 모아내지 못했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 앞에서 불편한 모습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결과를 누구 한 사람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겠다"며 "불투명한 경선과 공천, 당 내부의 갈등이 동지들을 적으로 만들었고, 결국 국민의 신뢰를 잃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민주당의 위기를 내부에서 찾았다. 그는 "위기는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시작됐다"며 "국민의 삶보다 정통성 논쟁과 내부 갈등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력과 책임으로 증명하는 진짜 여당, 확실한 비전으로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출마 선언 장소로 호남을 선택한 이유를 설명하며 "답이 벼랑 끝에 설 때마다 민주당을 살려낸 것은 언제나 호남이었다"며 "약무호남 시무국가(若無湖南 是無國家,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 호남이 없으면 민주당도 없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호남을 대한민국 미래산업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특히 전북 발전과 관련해 "전북을 로보틱스의 메카, 미국 보스턴과 같은 로봇 도시로 만들겠다"며 "세계적인 농업대학과 농업기업을 유치해 농업



9일 전남광주특별자치회에서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출마를 선언하고 있는 송영길 의원. (사진=송영길 의원실 제공)

테크벤처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탄소 산업과 군산항 MRO 산업을 연결해 서남권 산업 핵심축으로 키우겠다"고 약속했다.

송 의원은 자신이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위해 헌신해 온 경험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부상과 테러 위협 속에서도 이재명 후보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며 "혹독한 시련을 이겨낸 만큼 이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당대표가 될 경우 추진할 핵심 공약으로는 △호남 공직자 선출 경선의 공정성 확보 △당원과 직접 소통하는 정당 운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발전 지원 △호남 반도체·AI 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송 의원은 "이번 정당대회는 생명성 경쟁이나 계파 경쟁이 아니라 민생 경쟁이 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을 다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 일하는 여당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송 의원의 이날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으로 인해 6일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 8일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 3명이 출마를 선언했고, 정청래 전 당 대표의 출마 선언만을 남겨놓고 있다. /이만호 기자

## 전북,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시대 열다 | 군산~전주~대전 118km 실제 물류노선 운행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해 온 상용차 자율주행 기술이 실제 물류 현장에 적용되며 국내 자율운송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전북자치도는 군산 특수화물 통관장에서 한진 전주 터미널을 거쳐 대전 메가 허브까지 이어지는 편도 118km 구간에서 국내 최초 자율주행 화물 유상 운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해 광역 운송망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에 이어 올해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화물 유상 운송 허가를 받은 데 따른 성과다.

운행 노선은 주 3회 정기적으로 운영되며, 전북 향토기업인 타타대우모빌리티의 25톤급 대형 트럭 '맥센(MAXEN)'이 투입된다. 차량에는 라이드플러스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적용돼 상용차 제조 기술과 인공지능(AI) 기반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된 미

래형 물류 모델을 구현했다.

특히 이번 서비스는 단순 도로 주행을 넘어 주요 물류거점 간 간선 운송과 터미널 내 무인 도킹까지 화물운송 전 과정에 자율주행 기술을 적용했다. 이를 통해 자율주행 기반 상용 물류 서비스가 기업 간(B2B) 물류 시장에서도 실제 사업 모델로 활용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자율주행 화물운송은 장거리·반복 운행이 많은 물류 분야에서 높은 활용

성이 기대된다. 운전자의 운행시간 제한과 피로도 문제를 줄이고, 축적된 주행 데이터를 활용한 경로 최적화와 안정적인 야간 운송이 가능해 물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향후에는 운전자 부족 문제 해결과 물류비 절감, 운송 시간 안정화 등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니다

## 한 줄 소식 '체포방해' 윤석열, 징역 7년 확정

**전북형 바이오 완벽한 팀워크!**

전북형 바이오산업, 지역별 특화된 클러스터의 연계로 경쟁력을 키워갑니다. 바이오에 필요한 시작과 끝, 이제 전북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바이오 머스트후버 전북특별자치도

**익산** 동물용 의약품 클러스터

**전주** 혁신인원기기 클러스터

**정읍** (의약품산업 클러스터)